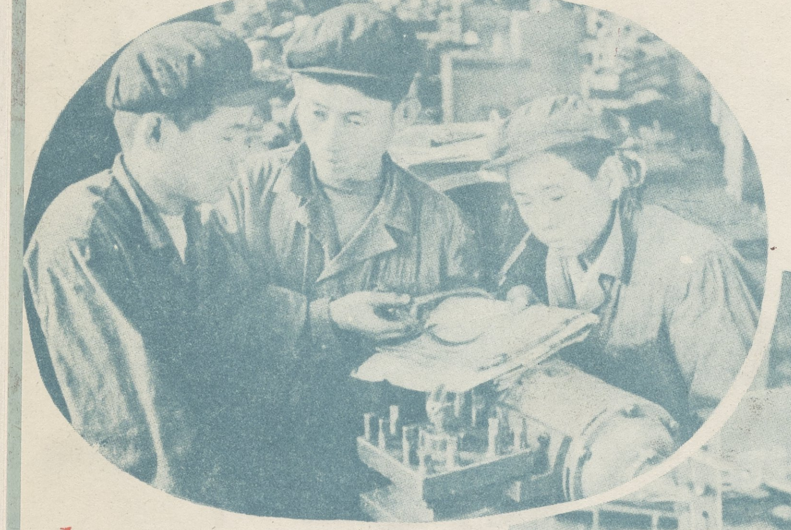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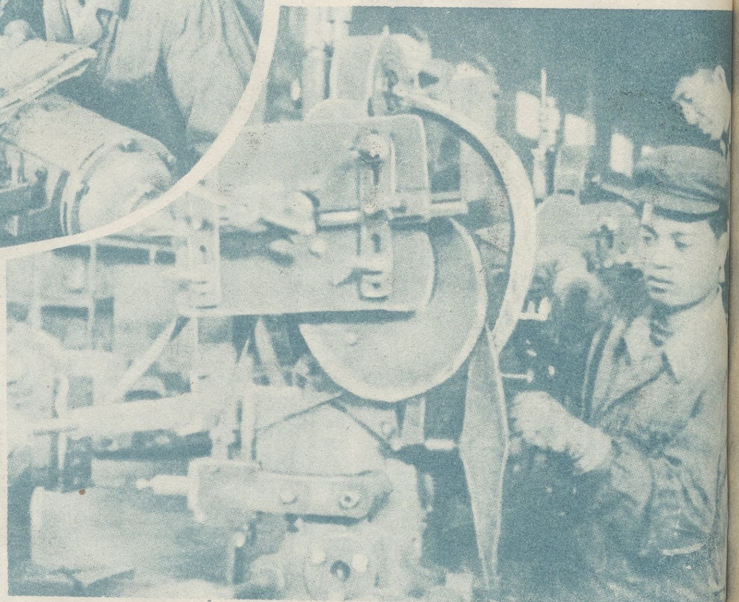
청년생활

1959. 12

기술 혁명 전선에서



↓ 평양 전기 기계 공장 청년들은 자체의 힘으
대의 각종 공작 기계를 만들어서 설비 직장
적 설비로 꾸리였다.



↗ 황해남도 청단 농기계 공장 청년들은 이들에게서 절삭 기술을 배우고 있다.

↓ 청진 농기구 공장 청년들은 탈곡으로부터 정선에 이르기까지 한 시간 동안에 2톤의 알곡을 탈곡할 수 있는 40 대의 종합 탈곡기를 만들어서 농촌에 보내였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권두언: 청년들의 모든 힘을 완충기의 중심 과업 해결에로 ……………(2)
정론: 천리마로 달린 1959년! ……………김 병훈(6)
승리의 뜨거운 신념은… ……………전 병설(8)
—민청 단체들에서—
당의 충실한 전사로 ……………구 성복(10)
청년들의 실생활과 결부시켜 ……………박 성준(11)
반기계화로부터 더 높은 단계에로! ……………(25)
원료 원천은 확보 되였다 ……………김 춘택(25)
시: 사랑 스런 조국 ……………박 승수(12)
새로운 봉화 ……………윤 세웅(14)
단평: 근본 문제는 사상 개조이다 ……………강 영수(16)
재담: 갈돌이' 군 ……………김 상훈(18)
벽시·비판은 재패에 외 1편 ……………박 산운(21)
미래를 사랑하라! ……………김 학연(22)
만수의 세계 려행(남조선에서) ……………글 박 승수 / 그림 남 현주(26)
붉은 수첩(련재 소설) ……………리 기영(28)
청년 오락실 ……………(32)
—생활의 거울—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13)
《어데서 하던 버릇이요?》 ……………(20)

표지 1면—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하여 ……………전 창원 그림
표지 4면—분배 받는 날 ……………김 기만 그림



12
(123)
1959

편집 위원회 리 홍종(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박 승수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12월 5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12월 10일 발행
(값 30 전 7—30800) 105,000부 발행

청년들의 모든 힘을 완충기의 중심 과업 해결에로

완충기의 중심 과업

력사적인 제 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제 2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고지로 넘어 가는 전환기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소집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1960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문제와 지방 정권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그리고 경제림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조성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금번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발전 단계에서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투쟁 강령을 제시한 중요한 연설을 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제 2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1960년을 완충기로 규정하였다. 금번 전원 회의는 당의 이 방침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완충기의 중심 과업과 그의 실행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그러면 우리 당이 규정한 완충기의 중심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원 회의 결정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지난 시기 특히는 금년도 계획 수행 행정에서 일부 경제 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약한 고리를 추켜 세우고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원 회의는 완충기의 이와 같은 중심 과업을 원만히 실행하기 위하여 **첫째로**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전 당의 력량을 집중하며 **둘째로**는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며 **세째로** 모든 공업 부문들에서 로동 생산능률의 제고와 현존 설비 및 생산 면적의 리용률 제고에 의하여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며 **네째로** 외화 획득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 기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명년을 완충기로 규정한 우리 당의 방침과 완충기의 중심 과업에 대한 전원 회의의 결정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빛나는 모범이며 전원 회의의 문헌들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전투적 강령과 확고한 전망으로 무장시켜 주는 력사적 문헌이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을 비롯하여 12월 확대 전원 회의 문헌 내용과 그의 사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완충기의 전투적 과업 해결에 일체 력량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농촌 기계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자!

금번 전원 회의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명년도 완충기에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심적인 과업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완충기의 중심 과업으로 제기되는 리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협동화가 완성되고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과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공고화가 결정적으로 기계화의 실현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급속히 전진하는 공업 발전 속도에 농촌 경리를 따라 세워 공업과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세째로** 농촌 기계화는 농민들을 선진적 기술과 문화에 더욱 접근시켜 그들의 사상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우리에게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수행할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 즉 우리 나라에는 농촌 기계화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공업과 지방 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축성되여 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도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발전과 전반적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법칙적 요구이며 또한 성숙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촌 기계화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 동력 기계에 의한 기계화를 촉진시키면서 축력 농기계의 공급을 병진시키며 평야 지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산간 지대에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당은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금번 전원 회의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에 각종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1961년도까지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며 이외의 도들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에 따라 계단 별로 기계화를 최단 기간 내에 완수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체 청년들은 당의 농촌 기계화 방침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난 기간 농촌 수리화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농촌 기계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특히 기계 공업 부문의 청년들은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를 비롯하여 동력 및 축력 파종기, 제초기, 수확기, 련결차와 련결 농기계 등 질 좋고 다양한 각종 농기계와 운수 수단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기 위한 련대적 집단 혁신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 수행의 거점으로 되는 농기계 작업소 내 청년들은 책임성과 기술 기능 수준을 더욱 높이여 이미 공급된 농기계 설비를 애호 관리하고 보수를 제때에 하여 그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담당 지역 내 농업 협동 조합 청년들의 기술 습득과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에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촌 청년들 속에서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대중적 행군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각종 기술 크루쇼크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 운전수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며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높이는 동시에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과감히 타파하면서 지방적 특성에 알맞는 쓰기 좋고 능률적인 중소 농기계와 설비들을 창의 고안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것이다.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완충기에 우리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 과업의 하나는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알곡과 채소 생산을 앞세우며 수산업과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택과 문화 후생 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사람마다 《기와 집을 쓰고 살며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게》 하려는 우리 당의 인민적 정책의 구체적 표현이다. 전체 청년들은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애국적 헌신성과 창의 창발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한 치의 땅도 묵이지 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지를 얻어 내여 그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라고 한 당의 교시를 견결히 실천하며 선진 영농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알곡과 채소 생산을 백방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축산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협동 조합의 공동 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조합원들의 개인 부업 축산을 이에 배합하여 적극 발전시키며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1 년간에 경지 정당 돼지 1 두 내지 2두, 조합원들은 농호당 2 두씩 길러 내도록 하는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를 것을 제시하였다.

농촌 청년들은 공고한 사료 기지 조성을 위하여 2모작을 실시할 데 대한 당 결정 실행의 선두에 나서며 당의 호소를 받들고 축산 부문에 진출한 청년들은 축산업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축산물 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르는 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청년들은 수산 부문에 계속 진출하여 심해 어업과 연안 중 세소 어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천해 양식과 담수 및 함수 양어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공업과 지방 공업 부문 청년들은 각종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특히 지방 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명년에 당은 국가 투자에 의한 주택 건설만 하여도 금년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증대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 규모는 3, 5배, 병원은 3,6배, 극장, 영화관, 구락부는 8배로 증대할 것이다. 건설 부문의 청년들은 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주택을 쓸모 있고 멥시 있게 건설하며 전체 청년들이 사회적 운동으로 학교를 비롯하여 문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지적한 완충기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외화 획득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광산 부문 청년들은 더 많은 유용 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청소년들은 외화 원천을 백방으로 탐구 동원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전 인민적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동시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외화를 극력 절약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자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전 당과 전체 인민 앞에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자**》는 구호를 관철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 구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전원 회의가 완충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한 바와 같이 《**공업 부문에서 새 건설을 적게 진행하며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현존 생산 설비 및 생산 면적의 리용률의 제고에 의하여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원 회의는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금번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정, 공산주의적 로동 태도와 그들의 기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남녀 청년들은 로력의 증가 없이 생산 설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원자재를 절약함으로써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는 것은 1960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한 당의 교시를 명심하고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우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정책들을 깊이 학습하여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실천적 투쟁과 조직 생활을 통하여 사상 수양을 강화함으로써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확립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온갖 보수주의와 소극성 등 낡고 침체한 사상 경향을 과감히 타파하고 대담하게 생각하며 실천하는 혁명적 기풍을 배양하여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청년들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며 그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각종 기술 교양망에 적극 참가하여 최단 기간 내에 자기의 기능 급수를 1—2급씩 높이고 다기능의 소유자가 되며 생산에서 리탈됨이 없이 학습하여 기사, 기수의 대렬에 들어서도록 완강하게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선진 작업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작업 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위한 창의 고안 및 발명 합리화 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가 명년도의 긴절한 과업으로 전체 근로자들 앞에 제기한 과업의 하나는 절약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적 축적과 국가적 예비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다. 전체 청년들은 자기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한 오리의 실, 한 그람의 석탄이라도 더 아껴서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려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다운 기풍을 확립하며 일체 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자》고 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증산과 절약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일 것이다. 여기서 천리마 청년 작업반, 청년 작업반, 청년 돌격대, 민청호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으며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이 실천되는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거대한 생활력과 위대한 변혁들이 일어 나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실행에 들어 서면서 전체 근로자들을 증산과 절약 투쟁에로 불러 일으킨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인 천리마 운동의 혁명적 대고조가 일어 났다.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의 현명성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나라 청년들은 금번의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함으로써 당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시위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의 지시와 위임을 실행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영예로운 일이 없으며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되고 당의 령도를 받는 청년들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이란 없다.

전체 청년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당이 제시한 완충기의 혁명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후비대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할 것이다.

(정) (론)

천리마로 달린 1959년



김 병 훈

만일 우리가 지나간 력사의 한해 한해를 각각 한 개씩의 산봉우리들로 간주한다면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달음쳐 온 우리 조국 력사의 련봉에는 근 5천 개의 산봉우리들이 서로 어깨를 겯고 솟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력사의 봉우리들은 각기 자기 해가 이룩한 빛나는 추억들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아아한 봉우리들을 발밑에 깔고 유독 까맣게 중천 높이 솟구쳐 오른 하나의 봉우리를 보노니 바로 그 봉우리는 천리마를 타고 치달아 오른 《1959년 봉》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실로 이 위대한 한해, 조국 청사에 길이 아로새겨 넣을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렸다. 5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그의 공업 총생산액에서 지난 6월 말 현재로 2년 반 동안에 정복해 냈으며 금년 말 까지에는 공업 총생산액에서 113.2%로 초과 완수하게 될 것이다.

1차 5개년 계획의 완수! 이 얼마나 커다란 랑만인가! 이것은 그 어떤 경제적 수'자 지표의 달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몇 마디 말 속에, 그 몇 개의 수'자 속에는 실로 수천년 력사를 두고 우리 조상이 벗지 못하고 물려 준 빈궁이라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누더기를 영영 벗어 동댕이쳤을 뿐 아니라 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서 우리는 벌써 인류의 락원—공산주의를 리상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세대의 당면 리정표로 바라보게까지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우리는 이미 주요 공업 제품의 인구 일인당 생산량에서 일본을 공무니에 떨궈 놓았다. 지금 우리는 하루에 천리 준마를 타고 앞길을 당겨 질풍처럼 내닫는다.

어느 한 부르죠아 경제 전문가가 조선에 온 일이 있었다. 그는 조선에서 벌러지고 있는 천리마의 기적들을 보자 눈과 입을 딱 벌리고 리해할 수 없다는 듯이 도리질만 하였다. 어찌하여 하루'밤 사이에 고층 건물이 한두층씩 올라 가며, 14년이나 착실히 걸려야 할 철도 공사가 청년들의 손으로 단 일년 반 동안에 첫 렬차의 기적 소리를 울렸단 말인가? 구식 직결 선반기들이 최신식 자동 선반을 새끼치며 지어 8메터의 타닝반을 불과 두 달에 새끼치다니 도대체 이 무슨 조확가?…

조선의 온 땅'덩이를 하루에 천리씩이나 미래에로 이끌고 날아 가는 《천리마》는 그 무슨 《원동력》으로 날아 가는가? 거기엔 원자력도 없는데?… 그는 상식과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조선을 그냥 눈과 입이 휑하여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세계에 류례가 없는 이 거대한 힘, 하루에 천리씩 미래를 당기는 조선의 힘은 어데서 어떻게 솟구쳤는가?

우리의 대답은 간단하며 명백하다.

그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한 것이며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한 자유로운 인민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그것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총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명력을 시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힘으로 하여 우리는 금년에 세계에 류례가 드문 속도로 그리고 원만하게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총화를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서 지었고, 붉은 편지를 받은 뒤 단 6개월 동안에 왜놈들이 조선에서 30여 년간 해놓은 관개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개 체계를 확립하여 가물과 수해를 영원히 청산하고 대풍작을 거두었다. 우리는 작년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단 2~3개월 간에 천 여 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금년에 이미 이 공장들에서 나라의 공업 생산액의 근 30%를 만들어 내고 있는 지방 산업과 생산 협동 조합의 위대한 성과를 총화짓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다. 윈나에서 울려 퍼진 조선의 노래—황금의 예술은 지구상의 모든 곳으로 절대한 환호와 찬양 속에 울려 퍼졌다. 뿐만이랴! 십오분에 한 대씩 공작 기계를 새끼치고, 인구의 4분지 1이 학교에 다니며, 분과 시간마다 새로운 발명과 혁신을 일으키고 조선의 하늘과 땅에 기적이 평범한 것으로 쌓이게 한 해가 아니였던가!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로 하여 조선— 천리마, 이 말은 평화와 사회주의, 진보와 혁신, 영웅성과 용감성의 모범으로서 모든 인민들의 심금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들 속에는 송남의 깊은 지심 속에서와 강계의 험한 산'발들에서, 용광로, 평로의 불'줄기 앞에서와 동해의 창파 우에서, 넓은 전야와 깊은 산판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흘린 땀방울도 스며 있음을 자랑할 수 있다.

천리마로 달려 온 이 한해를 어찌 이 좁은 종이에 다 옮길 수 있으랴! 그러나 력사의 상상봉을 달음쳐 오른 한해를 돌이켜 우리가 간혹 잊을 수 있는 사건이나 통계 수'자는 있다할지라도 잊을 수 없고 언제나 심장 속에 간직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의 현명성을 믿고 그 속에 자신들의 운명, 행복, 미래… 모든 것을 맡긴 우리 인민의 불패의 정치적 통일 단결—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계속 혁명, 계속 혁신을 일으키는 필승 불패의 우리 인민의 대진군!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인민과 어깨를 겯고 나란이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에까지 치달아 오를 수 있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해를 총화지으면서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명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한해를 보냈다. 우리는 다만 이 위대한 한해를 총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미래에로 더욱 굳건히 하며 꽃피워 나감으로써만 위대한 총화의 진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들에게는 한 일도 많지만 할 일은 더욱 많은 것이다.

바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우리에게 이 할 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명시된 완충기 과업—바로 이것이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치달아 올라 온 봉우리보다도 더 높은 사회주의 건설 완성의 상상봉이 바라보인다. 그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렬을 정비하며 쟁취한 현 고지를 공고한 진지로 닦으며 이리하여 새로운 전투—, 제 2차 5개년 계획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당이 내세운 이 로선— 작전 계획이야말로 우리 전투의 필승 불패를 담보하는 천재적인 것이 아닌가! 완충기야말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로 온 나라가 비약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과 억센 날개를 장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당의 후비대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은 당의 완충기 과업 관철에로 한결같이 자기의 억센 붉은 가슴을 내대고 싸우자!

농촌으로! 더 많은 기계를 농촌으로!

공장의 청년들은 농촌에 더 많고 성능이 좋고 정밀하고 튼튼한 기계를 보내자! 농촌의 청년들은 작업을 기계화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더욱 높이자! 한땅에서 한 해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곡식을 키워 내자. 밭을 놀리지 말자! 그리하여 더 많은, 풍족한 쌀과 고기와 채소를 우리 인민들에게 주려는 당의 뜨거운 념원을 우리 청년들의 붉은 열정과 지혜로 받들어 수행하자!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더욱 훌륭하게 짓자! 우리가 짓는 주택이며 학교, 탁아소, 유치원, 편의 시설과 문화 시설들은 단순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미래에 살 우리의 전당과 궁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쓸모 있고 보기 좋게 튼튼히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국에 더 많은 지하 자원을 캐 보내고 더욱 굳고 단단한 강철을 더 많이 보내며 창창한 물'결을 가로 세로 가르며 펄펄 뛰는 고기떼를 잡아 들이자!

우리 청년들은 문화, 기술 혁명에서 선봉대이다. 공산주의자란 문화 수준에서나 기술 수준에서나 인류의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 어데서 살고 그 무슨 일을 하건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하자. 부르죠아 사상인 개인주의를 뿌리 뽑아 버리자. 위생 문화 사업의 근위대가 되여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사람마다 무병하고 건강하고 모두 장수하는 지상 락원으로 꾸리자!

우리에게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가 계시고 그이가 령도하는 당 중앙이 있고 그이들이 지펴 주신 우리들 가슴마다에 붉은 홰'불이 타고 있는 한 우리에겐 점령 못할 그 어떤 요새도 아아한 상상봉도 없다!

천리마의 젊은 기수들이여! 고삐를 늦추지 말고 오직 앞으로! 당이 가리키는 혁명 승리의 길로 더욱 용감하게 달려 나가자!

승리의 뜨거운 신념은…

항일 빨찌산 참가자 리 봉수 동지의 회상담에서

리 봉수 동지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어느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당 사업을 하였으며 학습 지도자로 공작하였다. 내가 동지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유격대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회상하는 것이였다.

…얼마나 곤난한 환경 속에서 학습이 진행되였는가에 대하여는 류루히 말하려고 하지 않소, 곤난이 심할수록 우리 유격대원들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학습을 하였소. 학습은 조성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요.

혁명의 길에서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들도 많았소. 아는 바와 같이 혁명 사업이란 계급 투쟁의 치렬하고 간고한 행정이 아니겠소! 이 길에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인내성 있게, 완강하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가슴 속에 신념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신념이란 맑스—레닌주의의 필승 불패의 신념이요. 이것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소.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그처럼 간고하고 장구한 나날을 산 속에서, 눈 속에서 지내면서 강적 일제와 싸워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슴에 승리의 신념이 항상 홰'불같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였소. 이게 귀중한 것이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불면 불휴의 학습과 교양과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소.

우리는 참으로 전력을 다하여 학습에 열중하였소. 학습에 필요한 문헌을 구하기란 힘들었소. 어쩌다가 그 귀한 문헌을 얻기만 하면 동지들의 손에서 떨어질 사이가 없이 심지어는 가렬한 전투의 여가에서도 그 문헌을 탐독하였고 토론하였다오, 그때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심장으로 느끼였소. 모르면은 적에게 얼리울 수 있고 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였소. 그러므로 우리 유격대원들은 적아를 옳게 분간할 줄 알며 투쟁 목표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 낼 줄 아는 혁명가로서의 높은 정치적 안광을 기르기에 전력을 다하였던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학습은 그야말로 혁명 사업이였소. 김 일성 원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말씀하시였소. 그리고 모범을 보여 주셨소.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김 일성 원수께서는 틈을 내여 꼭 학습하군 하였소. 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교육 교양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주셨소. 참고 문헌이 극히 부족한 조건에서 김 일성 원수께서는 학습 지도자들을 위한 소책자들을 틈틈이 친필하여 프린트해서 우리들에게 내려 보내 주시였소. 한 번은 그이께서 친필한 《당 학습 요지》라는 소책자를 받은 적이 있었소. 거기에는 《당이란 무엇인가?》, 《혁명이란 무엇인가?》, 《인민 주권이란?》 등의 소제목들이 들어 있었고 매 소제목에 따라서 누구나가 리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써 해석문이 씌여 있었고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지만 그 소책자의 해석문에는 맑스—레닌주의 명제들을 쉽게 해득할 수 있는 실례들이 많았소. 그 실례들은 주로 당시 우리 조선의 사회 정치 경제 형편에서 취한 것이 대부분이였소.

그이께서 친필한 적지 않은 소책자들은 우리들의 정치 학습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소. 학습 지도자인 나는 그 소책자를 연구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심이 굳어지더란 말이요. 내가 왜 총을 쥐고 일제와 싸워야 하며 또 난관을 극복하고 싸우느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사랑하는 부모 처자와 함께 그리운 조국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날이 오고야 말리라는 그와 같은 확신이 온 몸에 끓어번져지더란 말이요. 이러한 감정은 물론 나뿐이 아니라 성실하게 학습한 우리 유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으로 되였던 것이요. 이러한 것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사상 감정인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혁명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소. 우리의 락천성도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었소. 조국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랑만을 마음 속 깊이 믿는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국과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까울 것이 없이 바칠 숭고한 의욕과 충동이 일어 나기 마련이며 그러한 까닭에 그들은 원쑤를 철두철미 증오할 줄 알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생을 살 줄 알았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만면에 웃음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요.

맑스—레닌주의 학습은 우리 유격대원들의 심장에 바로 이와 같은 신념과 락천성을 부여해 주었소. 이는 온갖 난관을 박차고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성취케 한 가장 중요한 담보중의 하나였소.

김 일성 원수께서는 또한 1935년 경에 《과외 공작》이라는 소책자를 친필하여 학습 지도자들에게 내려 보내 주셨소. 프린트한 이 소책자는 유격대내 군중 문화 사업과 공산주의 교양 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밝힌 귀중한 문헌이였소.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이 있었소. 《조기회》, 《만회》, 《강연회》, 《연구회》, 《오락회》, 《무도회》, 《독보회》, 《야유회》…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내가 그 문헌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요. 그 소책자를 잃은 것이 더없이 원망스럽소. 기억되는 것만 이야기하기요, 매 소제목들의 서두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목적과 의의가 명확히 서술되여 있었소. 례를 들어 《만회》에서는 주로 고담 (옛이야기), 만담 등의 형식을 통하여 착취 제도 하에서 압박 받고 짓눌리여 신음하는 근로 인민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하게 함으로써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계급적 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고도로 배양시켰으며 그리하여 대원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각성시켜 주어 당면한 일제와의 싸움에서 무용을 떨치게 하였던 것이요, 그때 일이 떠 오르오. 우리는 그때 거의 날마다 이 《만회》를 진행했었소. 청년들이 지금은 당의 령도 밑에 지상 락원으로 된 자기 고향 마을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는 《만회》에서 어떤 동무는 고향 아무데서 소작 살이를 하였는데 지주 놈의 착취가 너무도 혹심하여 하루밤은 그놈의 쌀 창고에 불을 지르고 떠나 온 것이 고향을 떠나게 된 사유라고 하면서 의분을 금치 못해 하였소.

또 어떤 동무는 좁쌀 한 가마니 때문에 나어린 딸자식을 지주 놈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니 애비된 나로서 그 원쑤를 갚지 못하고 숨을 걷운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소. 어느 동무는 고향 산천에 대한 자랑차고 오붓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소. 어떤 동무는 조선의 명장들인 리 순신, 을지 문덕, 강 감찬 장군들의 애국주의 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것이 기억 나오, 《만회》는 우리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게 하였소.

《강연회》에서는 무엇보다도 10월의 사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취급되군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강연회의 조직 진행에 대한 방법들이 소책자에 낱낱이 서술되여 있었소. 이 제목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뜻의 내용이 서술되여 있었소.

…강연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은 유격대원들에게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을 주입시키며 그들의 정치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 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군중 공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선전 조직자적 역할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데도 있는 것이다.…

소제목 《연구회》의 주요 내용은 온갖 애로와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취급되여 있었소. 그중에는 풀, 천, 짐승의 가죽 등으로 밥 짓고 국 끓이는 법, 밀가루 생산하는 법, 량식, 피복, 무기, 탄약 등을 창고가 없는 조건에서 보관하는 법, 군복 만드는 법, 행군 중 종적을 감추는 법, 무기 수리법, 탄환 재생법, 수류탄 제작법 등 이외에도 수다한 창의 연구 문제들이 서술되여 있었소.

《오락회》 내용에는 김 일성 원수께서 직접 창작하신 작품들이 실려 있었고 행군시, 부락 주둔시, 밀영지 생활시에 오락회를 어떻게 조직 진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씌여 있었소. 그리고 혁명 가요, 춤, 연극 등에 담아야 할 사상적 내용에 대해서와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당시의 국제 국내 정세와 관련한 긴요한 자료들이 서술되여 있었소. 산 속에서 살았으니 우리가 정세에 어두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모르고 어찌 혁명을 해 낼 수 있겠소. 아무리 고단하고 급한 때에도 우리는 독보회를 수시로 가지였소. 이런 일이 생각 나오. 해방후 내가 무산에 있을 때의 일이요. 그곳 사람들에게 나는 배 락기를 비롯한 일제의 주구 놈들이 1939년 경에 왜놈들에게 비행기까

형식들이 가지는 특성에 대하여도 쉽고 흥미가 있게 쓰셨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각종 오락 기구를 만드는 법까지 씌여 있었소.

《독보회》에는 각종 출판물을 어떻게 리용할 것이며 전투 소보를 어떻게 발간 운영할

지 헌납한 사실을 폭로하였소. 그랬더니 사람들은 나더러 어떻게 놈들이 비행기 석대까지 헌납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가고 의아해 하더란 말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나쁜 놈들의 행위를 모르고 있을 수 있었겠소. 산 속으로 다녔지만 우리는 다 알고 속으로 그놈들을 벼르며 싸워 왔소.

《과외 공작》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소. 차차로 깊이 생각하느라면 귀중한 그이의 필적들과 교시 내용들이 더 선명하게 머리에 떠 오를 것이니 그때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합시다.

유격대에서의 학습—유격대원들이 어떻게 자신의 심장 속에 맑스-레닌주의의 붉은 신념을 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사적을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연구하고 우리 청년들의 생활에서 그 모범이 빛나게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전 병 설

☆ 신간 소개 ☆

공청 생활에 대한 회상

판형 4×6판, 100,000부, 값 10 전

민청 출판사 발행

이 책에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의 공청원들의 회상기가 수록되여 있다. 회상기의 필자들은 모두 당시의 공청원들이다.

항일 빨찌산 대오에서, 지하에서 또는 원쑤들의 감옥에서 항상 김 일성 원수의 교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공산당원들의 뒤를 따라 혁명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백절 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공청원들의 회상기는 민청원들에게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공청원들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살며 싸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민청 단체들에서

당의 충실한 전사로!

우리 광산 민청 단체에서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당의 충실한 전사로 교양하기 위하여 혁명 전통 학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주로 진행한 방법은 독서 감상회, 상봉 모임, 연구 발표회 등이였다.

우선 우리는 민청원들로 하여금 혁명 전통을 내용으로 한 책들을 될수록 많이 읽히우는데 주력했다.

선광 부문 민청 단체에서는 우수한 민청원들을 중심으로 크루쇼크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책 부수가 적은 조건을 고려하여 전체 청년들에게 될수록 많은 책을 읽게 하려고 세 사람씩으로 된 륜독조를 조직하였다. 이 륜독조에서는 누가 어느 책을 언제까지 본 다음에 누구에게 넘겨 주겠는가 하는 것을 미리 정해 주었다. 그래 놓고 륜독조 책임자는 반드시 이들이 세워진 계획 대로 책을 읽고 있는가를 수시로 검열하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선광 부문내 민청원들은 보통 한 책을 평균 4회씩은 읽게 되였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내용을 리해하지는 못하였다. 그래 이들은 아직도 채 리해하지 못한 동무들에게 우수한 크루쇼크원으로 하여금 그 책 내용의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민청원들에게 내용을 다 리해시킨 다음에야 연구 발표회를 조직했다. 이 모임에서는 학습을 통하여 얻은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원들의 고귀한 혁명 정신을 어떻게 본 받겠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고난의 40일》과 《돈하의 수림 속에서》를 읽고난 조 경옥 동무는 자기도 김 학실 동지처럼 혁명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울 결의를 다졌다. 테불공이였던 그는 더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기 위하여 남자들이나 할 수 있다는 뻘미루, 지크 운전을 맡아 나섰다. 이때 일부 녀성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기였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항일 투사들의 고귀한 혁명 정신을 자신들의 뼈와 살이 되게 학습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였다. 민청 단체는 또다시 김 학실 동지의 투쟁을 형상화한 《혁명을 위하여》를 읽게 하였으며 감상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한편 해설, 담화, 이야기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지금에 와서는 조 경옥 동무를 비롯한 많은 처녀들이 이 애로를 타개하고 기술을 배움으로써 훌륭한 운전공이 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한편 전적지 답사와 상봉 모임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을 스크랩, 자료집 등으로 만들어 그들의 학습을 방조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학습을 통하여 얻은 혁명 선배들의 고상한 도덕 품성과 혁명적 동지애 그리고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을 실지 생산 활동에서와 생활에서 본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테불공인 박 춘복 동무는 광산 로동은 제 취미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 어지러운 일은 더는 하기 싫다고 딴 직장으로 옮겨 가려고 하였을 때 조 경옥 동무는 책에서 읽은 혁명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알아 듣도록 친절히 일깨워 주었다. 그리하여 춘복 동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은 훌륭한 테불공으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혁명 전통 학습을 통하여 민청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행복이 혁명 선배들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민청원들은 혁명 선배들의 모범을 본 받아 그들처럼 조국과 자기 향토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결의에 충만되게 되였다.

민청원들 속에서는 서로가 어려운 일의 앞장에 나서려고 하며 동무의 아픔을 자기 고통으로 알며 서로의 잘못을 랭혹히 깨우쳐 주는 기풍이 수립되여 갔다.

오늘 우리 광산 민청원들은 매달 루 800 톤의 생산 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실행하기 위하여 궐기하고 있다.

만년 광산 민청 위원회
위원장 구 성복

청년들의 실생활과 결부시켜!

우리 조합 민청 단체에서는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을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분산되여 작업하는 실정에서 우리는 주로 분조를 단위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열성 맹원 한 사람을 책임자로 정하고 이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 방조한다. 계획서는 주별로 작성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독보회, 이야기 모임, 감상회, 혁명 가요 보급 등을 예견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되는 륜독 조직도 포함되여 있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사업을 지도하면서 주별 총화는 작업반별로 하고 월 일회씩 조합적으로 총화한다.

우리는 이들의 실지 사업과 결부되게 혁명 전통 교양이 진행되게끔 방조하고 있다. 금년 탈곡시에 일부 청년들 중에는 주인답게 일하지 못하고 일을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 우리는 분조들에서 《돈하의 수림 속에서》의 감상회를 가지게끔 하고 자기 임무에 대한 충실성을 배우게 하였다.

일부 청년들이 바쁘다는 구실로 학습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포착한 우리는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대원들은 어떻게 학습하였는가》라는 제마로 이야기 모임을 가지게 하였다. 청년들은 자기들이 학습에 게을리한 결함을 비판하고 학습을 잘 할 결의를 다지었다.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기본 과업은 농촌의 기계화이다. 우리는 지금 황남도 현지 지도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연설 내용을 침투시키는 한편 《연길 폭탄》에 대한 독보회, 감상회들을 광범히 조직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년들 중에는 자기 맡은 사업들을 기계화하려는 의욕들이 비상히 제고되고 있다.

함북 경성군 장평 농업 협동조합 민청 부위원장 박 성춘

재일 동포의 조국 귀환을 열렬히 환영한다!

(시)

사랑스런 조국

—재일 동포를 맞이하는 청진 항에서—

박 승 수

해풍에 기'발을 날리며
동해의 파도를 넘어
오오, 귀국선이 들어 온다.
조국의 항구에 배가 닿는다.

자애로운 어머니 조국은
따뜻하고 정다운 품 속에
천대와 멸시에 시달리던 그대들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누나.

조국은 정다운 손'길로
이역의 거친 풍파 속에
이리 헤매고 저리 딩굴던
상처받은 아들딸을 쓰다듬누나.

해'빛처럼 빛나는 당의 권위와
강철 같은 조국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앞에 가로 놓이는
모든 장애를 물리칠 수 있었고

형제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온 세상 인민들의 리성의 웨침은
검은 구름을 휘몰아쳤거니
하여 그대들은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였다.

그대들을 끌어 안은
우리의 가슴에 차넘치는 생각
아, 조국이여 그대는 고맙구나
조국이여, 그대는 귀중하구나

조국 보다 귀중한 것
이 세상에 없고
당의 품 보다 넓고 깊은 것
이 세상에 더 없으려니

자랑하자 형제들이여!
부강하고 번영하는 우리 공화국
행복한 락원에로 이끌어 가는
영광스런 우리의 당을!

나아가자 형제들이여!
그대들도 천리마 대렬에 들어서라.
휘황하고 찬란한 미래를 위해
은혜론 조국을 로력으로 꽃피우자.

1959. 12

이것을 아십니까?

남북 조선 인구 1인당 주요 제품 생산량

※ 석탄, 선철, 강철, 세멘트, 화학 비료, 알곡은 단위 키로그람, 직물은 단위 메터, 전력은 단위 키로왓트시

	년도	전력	석탄	선철	강철	세멘트	화학 비료	직물	알곡
남조선	1957	59.1	110.1	-	0.8	4.1	0.4	5.9	167.9
북조선	1957	690.8	498.4	33.0	27.7	89.4	32.3	9.1	320.0
	1958	863.1	688.2	39.3	36.5	124.4	45.7	11.0	370.0
	6~7년 (예정)	2.000	2.500	400.0	300-350	500	150-200	50	700.0

생활의 거울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정각 6시에 만년 광산을 출발하는 신평행 뻐스를 타기 위하여 정류장에는 많은 손님들이 모여 서고 있었다. 뻐스가 나타나자 손님들은 반가운 기색을 띠며 줄지어 섰다. 뻐스 앞문이 열리더니 산뜻한 차장이 차에서 내렸다. 손님들의 눈'길은 아름답게 단장한 차장에게로 쏠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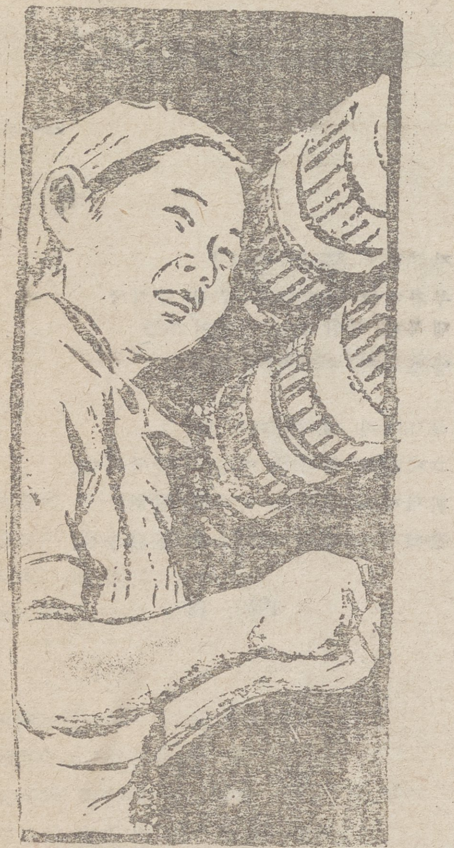
《그 처녀 참 곱게 생겼다!》하고 한 중년 부인이 혼자'말처럼 하였다. 어떤 손님은 《처녀동무!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오》하고 인사의 말도 던진다. 한 로인이 《그 처녀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에 웃음이 터졌다.

이때 쇠된 고함 소리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여보! 차표를 빨리 내란 말요!》 그것은 천만 뜻밖에 차장의 고함소리였다. 《네 차표를 깊이 넣어 놔서!》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그 차장을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던 로인이였다. 로인이 내 보이는 차표를 본 차장이 하는 말이 《앞으로는 주의하란 말예요》하였은즉!

갑자기 봄날같이 화창하던 날씨도 흐려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처녀에게서 눈'길을 돌렸다.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그 처녀는 신평 자동차 사업소 강 덕재 동무였다

새로운 봉화



공산주의적 발기

종업원 총회가 있은 날 저녁 천리마 작업반장 길 확실은 밤이 이슥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뒤떨어진 2직장 5작업반에 옮겨 갈 것을 회의에서 결의하긴 했으나 당장 래일부터 4년 남아 친형제처럼 지내온 동무들과 헤여질 것을 생각하니 서운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 5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한 이후부터는 48 명이 한덩어리가 되여 들끓어 왔다. 길 확실에게는 지난 기간의 가지가지의 일들이 꼬리를 맞물고 회상되였다.

이들이 영예로운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 참가할 때만 해도 오늘처럼은 모두가 일의 참된 주인으로로는 되지 못했었다. 강 원희, 리 연풍 동무를 비롯한 일부 기능공들은 무기능공을 도와 주는 것을 시끄럽게 여겨 왔고 또한 같은 작업반내 동무들끼리 서로 돕고 깨우쳐 주는 동지 호상간의 우애심도 부족하였다.

바로 이러한 자신들의 부족점들을 고쳐 나가자고 한마음이 되여 일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결함은 한두 가지씩 극복되여 나갔다. 이들 속에서는 틈만 있으면 서로가 기능을 배우며 배워 주는 기풍이 수립된 것은 물론이고 딴 작업반보다 앞서 나가게 되자 이러한 방조는 이 작업반 내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생산이 바쁜 때엔 의례히 작업이 끝나면 변 순선은 3교대로, 박 봉녀는 2교대 그리고 길 확실은 물론, 나머지 동무들도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일을 도우러 떠나군 하였었다. 이리하여 모두가 그 달 계획을 넘쳐 실행한 거뜬한 마음으로 새 달을 맞군 하였던 것이다.

길 확실 천리마 작업반원들의 이러한 눈부신 투쟁은 드디여 열매를 맺게 되였다. 4.8 급이던 전체 동무들의 평균 기능 급수는 4.93급으로 높아졌으며 량손 첨서 방법을 비롯한 8건의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초기의 80%로부터 일약 140%까지의 높은 생산 능률을 내게 되였다.

한편 이처럼 생산에서의 아름다운 기풍은 생활에까지 연장되여 이들은 말 그대로 한집안 식구가 되였다.

길 확실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일요일이면 의례히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거리로, 극장으로 놀러 나갔다. 그런데 초등 학원에서 갓 졸업하고 나온 전 채월 동무와 김 옥순 동무만은 좋은 조선옷이 없어서 늘 동무들과 휩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리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길 확실 작업반장은 《자 래일은 모두 대성산 유원지로 놀러 가자》하더니 《채월이, 옥순이 일어 서》하였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무심'결에 벌떡 일어 선 두 처녀의 허리엔 평그레쁘 치마가 걸쳐졌다. 은 작업반원들이 생활비를 모아 이들의 옷을 장만해 준 것이다. 이 날 저녁 두 처녀는 오래도록 흐느껴 울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읜 이들은 동무들에게서 어머니의 정을 느끼고 너무도 감격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서로가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부족한 듯하면 인차 마련해 주더 누가 앓아 눕기만 해도 또 제일처럼 근심하며 보살펴 주었다. 정말 이들은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난 7월 초, 5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영예로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수여 받았다.

그들의 주위에는 락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난 평양 제사 공장 천리마 작업반장 길 확실은—…아니야, 당초의 우리들의 결의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자는 것은 결코 아니였어.! 모두가 앞선 사람의 수준에까지 올라서야 해…그리고 우리 주위엔 락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당에선 내가 락후한 2직장 5작업반에 내려 갈 것을 제기하였을 때 그토록 고무 격려해 주지 않았던가? 어떤 일이 있드라도 당 앞에 다진 맹세 대로 앞선 천리마 작업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고 말테다…—고 자신의 맹세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이튿날 길 확실 동무는 2직장 5작업반으로 옮겨 갔다. 일에 착수한 그는 첫 사업을 반원들을 료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73 명의 작업반원들 중에는 초등 학원을 갓 마치고 나왔거나 지방에서 이동되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무들이 대부분이였다. 이들 중에는 일에 마음을 부치지 못하고 들떠 있는 동무가 적지 않았다. 고향을 함흥에 둔 일부 처녀들은 직장에 마음을 부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 갈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우선 직장과 숙소를 제집처럼 정이 들게 만들어야 했다. 저녁이면 한이불 속에 누워서 재미나는 책 이야기며 앞선 작업반원들의 경험을 들려 주는 일이 벌러졌다.

앞선 사람들 역시 당초엔 일에 마음을 부치지 못했고 기능이 낮아서 숫한 고생을 했는데 끝내 이것을 이겨 냄으로써 오늘의 혁신자들이 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차차 자신을 가지고 일에 열성을 내기 시작했다.

길 확실 동무는 이들의 어머니된 심정으로 동무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었다.

하루는 쉬는 날이여서 모두가 짝을 지어 놀러 나가고 숙소엔 길 확실 동무 혼자만 남아 있었다. 확실 동무는 아무 말 없이 동무들이 어지럽힌 뒤'자리를 깨끗이 거둔 다음에 기름때 묻은 두 동무의 작업복을 깨끗이 빨아 대려까지 놓았다. 저녁 늦게야 영화 구경에서 돌아온 리 금순, 안 민자 두 동무는 알뜰히 빨아 대린 작업복을 보고 깜짝 놀랬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모두가 친언니처럼 자기들을 보살펴 주는 길 확실 동무를 따르며 자신들의 생활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기 시작했다.

어떠한 락후한 동무들이라도 잘 방조하고 깨우쳐 주기만 한다면 일을 훌륭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였다. 허지만 열성만으로는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모두가 무기능공들인 터여서 생산에서 능률을 내자면 무엇보다도 이들의 기능 수준을 높여야 했다.

길 확실 동무는 직접 기대 앞에서 기계 운전법이며 표준 조작법 등을 한 가지씩 다일러 가며 대여주는 한편 숙소에 돌아 와서까지도 이들을 기술적으로 방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실 잇는 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초보적인 문제까지라도 잠'자리에 들때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군 하였다.

근기 있는 작업반장의 방조에 고무된 조사공 처녀들도 열성을 내였다.

날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의 기능 수준은 차차 높아 갔다. 오 운영, 안 민자를 비롯한 11 명은 얼마 안 가서 한 급씩 높아진 기능공으로 자라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우 10 여명만이 그날 계획을 겨우 해 내던 이 작업반에서 지금에 와서는 73 명의 모든 처녀들이 제 앞에 맡겨진 그날 과제들을 넘쳐 하게 되였다. 리 금순 동무를 비롯한 몇 동무들은 고작해야 70~80%를 넘지 못하여 늘 뒤꼬리만 따르던 처지에서 벗어나 최고 137%까지의 높은 생산 능률을 내게 되였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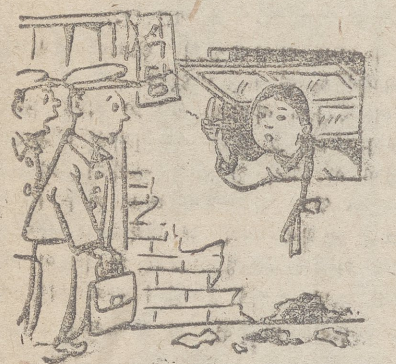
《물론 락후한 작업반으로 내려 왔는데 수입이 늘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는 벌써 천리마 작업반 운동 대렬에 들어 섰으니까요》 수입은 어떻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고난 길 확실 동무는

《잠시 동안 수입이 내려간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생산 과제를 다하고, 질을 높여서 원가를 저하시킨다면 결국은 우리 매 개인의 리익이 되니까요, 당초의 우리들의 목표가 비록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모두가 앞선 사람의 대렬에 들어 서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당 앞에 다진 맹세 대로 래년 1. 4 분기 전으로 천리마 청년 작업반 칭호를 쟁취할 작정이애요.》라고 말하였다.

본사 기자 윤 세용

단 평

근본 문제는 사상 개조이다



영업 시간이 다 되여서야 사리원 황해 식당 접대원들은 부랴부랴 청소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찾아 오기 시작했다. 불결한 식당의 주위 환경은 찾아 오는 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뚜껑을 씌우지 않은 김치독, 딩굴고 있는 크고 작은 쓰레기통, 식당 앞의 란무지 속에서 썩고 있는 오물들, 이 모든 것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이 부근에 다른 식당이 없소?》

한 손님이 이렇게 묻자 진하게 화장한 접대원의 얼굴이 창문에 나타나더니

《손님! 시장 식당에 가도 마찬가집니다》, 하고 태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였다.

이야기는 짧막하나 교훈은 크다. 위생 문화 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않은 곳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위생 문화 사업에서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상 개조이다.

현시기 우리 당은 문화 혁명 과업 특히 생활 문화와 위생 문화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며 그것을 해결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시킬 수 없는 절박한 혁명적 과업이다.

생활의 위생 문화적 개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 속에 뿌리 박힌 낡은 생활 관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 투쟁이다.

흑령 탄광 흑령갱 청년들은 위생 문화 사업에 대한 당의 정책과 위생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청년들 속에서 비위생적인 생활 태도를 반대하는 완강한 사상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위생 개조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개체 위생은 물론 자기의 일터와 가정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생활화하게 되였다.

위생 문화 사업은 꾸준하고도 완강한 교양과 사상 투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 청년들의 자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병행해서 동지 호상간 원칙적인 요구성과 비판, 통제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청년들로 하여금 위생 문화 사업에서 락후성을 천리마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수치로 인정하게 하며 모든 청년들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내성 있는 해설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생 문화 사업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릇된 현상에 대하여서는 회의들에서 집단적 방조를 주며 벽보를 통하여 폭로 비판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의 대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수세기에 걸쳐 짓밟히고 눌려서 살아오던 낡은 사회의 유습을 완전히 뿌리 빼고 사회주의—공산주의적 풍모를 더 빨리 갖출 수 있다.

위생 문화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서는 초급 민청 단체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모든 선전 선동 수단을 동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 혁명 수행의 중요성과 위생 문화 사업에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는 한편 위생 지식, 문화 생활과 공중 도덕 준수에 필요한 지식들을 민청 중앙 위원회 6차 전원회의 결정과 결부시켜 계속 광범히 침투시켜야 한다.

특히 교육 문화 기관, 교통 운수 기관, 편의 시설망을 비롯한 사회 봉사 기관내 초급 민청 단체들이 급속한 기한에 위생 문화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집행 위원회 또는 총회들에서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5월 4일 상무 위원회 결정과 그를 실행하기 위한 민청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며 이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할 데 대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들에서는 일상적으로 위생 문화 사업을 틀어 쥐고 구체적인 계획 밑에 이를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청소년 위생 근위대들을 발동하여 호상 검열 사업들을 광범히 조직하며 그들의 주목을 매개 청소년들의 개체 위생과 주위 환경을 깨끗이 꾸리는 데 집중시키며 모범을 창조하여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문화 시설들을 보호 관리하며 청소년들의 사회적 운동으로 새로운 시설들을 신설 확장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당이 제시한 모든 과업 수행에서 그러했던 것 처럼 문화 혁명의 촉진을 위한 당적 과업 수행에 한 사람같이 동원되여 위생 문화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본사 기자 강 영수



(재) (담)

감돌이'군





갑 여보게 자네, 어제 저녁 조합 써클 구경을 했나? 그건 정말 이만 저만한 수준이 아니던데.

을 허 자네 같이 신경이 돌'멩어리 같은 사람이 다 감격한걸 보니 구경인즉 여간한 인기가 아닌가 볼세.

갑 하여튼 난 허리가 끊어질번 했다니까 그래.

을 허 하마트면 자네도 다 볼번 했네그려.

갑 왜?

을 허리가 끊어질 번 했다니까.

갑 그렇게 끊어질 정도로 재미 있고, 흥미 있고, 내용이 있고, 사상성이 있고, 시기 적절하고 주체성이 있고 교양성이 풍부하단 말일세.

을 허 정말 문학 예술적 리론으로 푸는걸 봐서 과연 수준이 이만 저만하지 않은 모양인데.

갑 자 그렇게 아니라 어서 들어 보게나, 우선 맨 처음에 재담 《감돌이'군》을 했는데 말이야 척 한 친구가 팔짱을 끼고 나서더니만…

을 (형용을 하면서) 그래 팔짱을 척 끼고(무대를 뱅글 뱅글 돈다)

× ×

갑 아, 여보게 자넨 거기서 빙글 빙글 돌기만 하구 왜 사료 운반에는 안 나왔댔나?

을 이 사람아 그것두 점수 있는 일이라고 값싼 밥 먹고 나가겠나,

갑 그래두 점수는 없지만 일을 다 하고 나니 조합에서 나왔던 사람만은 모두 감자를 다섯 키로씩 주더군 그래.

을 뭐 뭣이, 감자를 준다구, 그럼 어서 나도 가 봐야겠군(뛰여 나가련다)

갑 (붙잡으면서) 허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감돌이'군이 되였나.

을 감돌이'군이라니?

갑 말하자면 조합 일에는 밴들밴들 경우만 보다가도 먹을 때는 왜 한 숟갈도 양보 안하는가 말이야. 그런걸 보고 일에는 배돌이, 먹을 때는 감돌이라고 한단 말일세.

을 아 그럼 내가 감돌이'군이란 말이야?

갑 그렇지,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가득 들어 찬 감돌이'군.

을 이 사람아 남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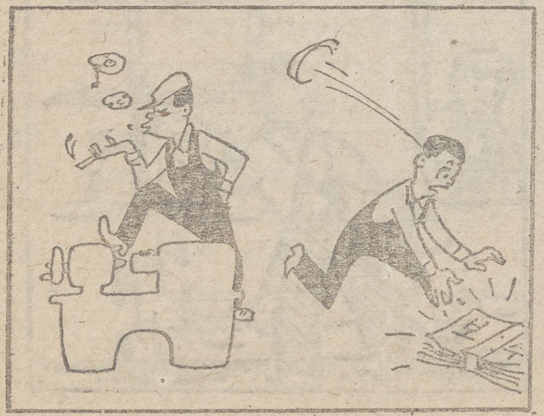
× ×

갑, 을 하하하…

을 그건 정말 멋들어진 촌극인데 그런데 여보게 이런 현상이 아직도 우리 조합에 있나?

갑 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일부 동무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지…그것 뿐인 줄 아나.

을 그래 또 해보게 들어 볼러이니까.





갑 자! 그 다음에는 《소경 제 닭 잡아 먹기》를 했는데 말이야.

을 그래 정말 잡아 먹었나?

갑 자 이렇게 덤빈다구야 정말 잡아 먹었는가 안 잡아 먹었는가 이제 보란 말일세.

을 그래.

× ×

갑 자네 울바자를 잘 했네 그려.

을 울바자는 좋고 든든해야 된다네.

갑 그야 그렇지. 그런데 재목이 어데서 났나?

을 이 사람아 사내 대장부가 그만한 수단도 없어서야 어떻게 하겠나?

갑 그럼 어데 좋은 수가 있나.

을 자네에게만 알려 주는데.(귀'속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갑 (깜짝 놀래며) 뭐 돼지우리를 질 재목들을!?

을 (딱하다는 듯이) 자 이 친구가 떠들긴 왜 떠드나. 그러면 남들이 먼저 다 가져 가지 않겠나.

갑 이 사람아 조합 사람들이 다 자네하고 같은가? 그런데 자네 그 재목을 가져 오면 돼지는 어떻게 하나.

을 이 사람아 사람이 짐승하구 같나, 원래 돼지라는거야 동지 섣달에도 싸다니면서 주어 먹어야 살이 찌거던…

갑 소경이 제닭 잡아 먹는 줄은 모른다더니 자넨 제집 재산을 눈을 척 뜨고 잡아 먹네 그려.

을 ………

× ×

을 하하 여보게 그건 정말 닭은 아니지만 잡아 먹긴 잡아 먹었네, (사이)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객석을 가리키며) 여게 와 앉아 있지만 우리 조합의 먹석네, 구순네, 용달이네는 좀 그런 사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

갑 그러기에 어제 민청 총회에서 단단히 비판 받구 고치겠다고 맹세했지.

을 암 고쳐야지, 그리고 재 넘어 영수도 좀 고칠 바가 많아!

갑 정말 영수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바르 어제 저녁 써클 공연에서두 영수가 한 그 몰골 대로 재담을 하더군 그래.

을 그건 정말 실감이 있었겠는데.

갑 응, 정말 실감이 있었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아서 그런지 무대에 나와서 하는 그 써클원들이 꼭 영수로 보이더군, 척 (옷자락을 헤치고는 건들건들하면서 나오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구선 말이지…

을 자네 왜 잔뜩 부어 가지고 서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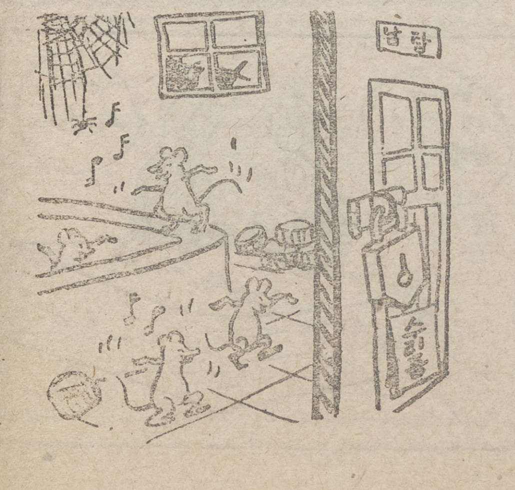
갑 말두 말게 기분이 나빠서, 아, 글쎄 오늘 그 송아지 때문에 점수를 받을 것도 더 못 받았거든!

을 송아지 코가 세든 모양이군 그래.

갑 그러기에 소는 앞으로도 대대 손손이 코를 께여 끌고 다녀야해, 하여튼 어느 때 조상이 이렇게 했는지 정말 잘해 놓았거든! 소라는 짐승은 아무리 때려두 내 말을 못 알아 듣는단 말이야.

갑 하하… 자네도 아주 코 막고 답답한 친구군 그래, 아무렴 소가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다 맞춰 주겠나, 그럴 때는(소 모는 소리로) 《이리야 낄낄, 와와 돌쥐 돌쥐—》 하면서 소하고 통하는 말을 써야 하거든.

을 그런 것은 다 소가 얼마큼 말을 들을 때이지 소가 오히려 나보다도 신경질





생활의 거울

《어데서 하던 버릇이요》

어느날 연안군 제 1 병원에 륙순이 넘은 할머니가 파송되여 왔다. 할머니는 워낙 신병이 심한 터여서 차례를 기다리다 못해 진찰실에 들어 섰다. 《선생님, 너무 괴로워서 손님들에게 량해를 구하고 들어 왔으니 좀 봐줘…》 하고 할머니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순서가 되면 봐 줄테니 나가시요》하고 외마디 소리로 뇌까렸다. 그만 어리둥절해진 할머니는 무안해서 되돌아 나오는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때마침 멋지게 차려 입은 한 녀성이 진찰실 문을 열고 들어 갔다. 오만상을 찌프리고 앉아서 약 처방을 떼 주던 《선생님》은 갑자기 웃는 얼굴로 《귀빈》 접대에 바빠 돌아 갔다. 그 녀성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진찰을 하고 약까지 타 가지고 돌아 갔다. 의아한 눈초리로 이 광경을 바라 보고 섰던 할머니는 하두 어이가 없어서 아무말 없이 파송장을 책상 우에 올려 놓으려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송장이 바람에 날리어 방'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아직까지 그렇듯 상냥했던 내과 의사 리 동옥은 노발대발해서 하는 말이 《이 노친네가! 도대체 어데서 하던 버릇이요— 노친네 태도가 글러 먹었단 말이요》 하였은즉… 리 동옥 의사에게 묻노니 대체 이것이야말로 어데서 하던 버릇이며 과연 누구의 태도가 글러 먹었는가?

(본사기자)

을 쓸 때에는 무관정하고 때려야 해 때려야.

갑 그래 오늘 몹시 때린 모양이군 그래.

을 말도 말게 재수가 없을려니까 늘상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더니 오늘따라 다리가 불어졌네. 참 어이가 없어서…

갑 그건 잘되였군 그래.

을 뭣이… 소가 다리를 다쳤는데 잘되다니.

갑 부러지라고 때렸으니까 잘했지.

을 자넨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그래 래일부터 저 채소밭을 갈아야 할 소가 상했는데 잘했어?!

갑 이 사람아 그러기에 소를 사랑하라는거야.

을 정말 분해서.

갑 분한 기분에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머리 속에 있는 그 낡은 사상 잔재를 쏙 뽑아 버리게.

을 (머리를 푹 숙인다)—

× ×

갑 자 그러고 보니 우리의 생활에는 아직도 이러저러한 개인 리기주의적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거든.

을 정말이지 이런 사상 잔재는 우리의 정신을 아주 흐리게 한단 말일세.

갑 암 조합 일이라면 눈치로만 재고…

을 조합에 나가자고 하면 비가 와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도 호박을 준다면 섬을 거꾸로 쓰고 달려 가는 렴치 없는 친구를…

갑 어디에 심부름을 가라면 공수부터 따지고, 올라 가라면 내려 가고 내려 가라면 올라 가면서 요리 조리 리해 관계만 타산하는 욕심쟁이…

을 이러한 모든 사상 잔재는 꾸준하고 인내성 있는 사상 투쟁을 통해서 고쳐야지.

갑 암 고쳐야지, 그래서 모든 일을 조합의 것은 내 것, 내 것은 조합의 것으로…

을 말하자면 국가의 재산이라는 애호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지.

갑 두 번 다시 말해 무엇 하겠나.

을 여보게 이러구 보니 써클을 본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가 써클 공연을 했군 그래.

갑 말인즉 하고 보니 그렇게 됐네 그려.

을 그러니 어떻게 한다.

갑 어떻게 하긴 무엇을 어떻게 하겠나? (앞으로 나가면서) 관중 여러분! 저희들의 변변치 않은 소품 공연을 이처럼 조용히 잘 봐 주신 데 대하여 인사를 드리면서 곧 퇴장하겠습니다.

갑, 을 (가볍게 인사를 한다.)

—퇴장—

김 상 훈



(시) **비판은 제때에**

박 찬 운

어찌 보고도 모른척 할 수 있으랴!
  바로 우리의 곁에서
동무 하나가 앓고 있을 때

더구나 자기의
  병 이름도 모르고
앓고 있는 동무를
옆에 보았을 때—

일깨워 주자
  날카롭게!
고쳐주자
  제때에!

병에는 약을!
  결함에는 비판을!
—귀중한 우리의 동지를 위해.

뒤에서 욕하지 말고
비판은 앞에서

앞에서 절하고는
  뒤에서 욕한 일이 없는가?

회의 때만 기다리고
  싸 둔 것이 없는가?
—뒤에서 욕하지 말고
  비판은 앞에서











미래를 사랑하라!

민청 중앙 위원회 추천 작품

조선 예술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를 보고

김 학 연

《미래를 사랑하라! 미래에서 당겨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앞당겨 오라!》

높은 정신력이 울려 나오며 미래에 대한 지향성이 맥박치고 있는 이 말은 우리 청년들의 심장을 그 얼마나 힘있게 고동케하는 것인가? 이 말은 항일 무장 투쟁 당시 군정 간부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의 교시 가운데의 한 구절이다.

이 극히 짧은 말씀 가운데 내포된 위대한 사상이 바로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박 승수 씨나리오, 천 상인, 최 남선 연출)의 주제로 되고 있다.

1930 년대는 우리 조국 력사상에서 고통과 질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하였던 가장 암담한 시기였다. 일제 강도들의 폭압과 략탈과 멸시 속에 우리 나라 온 천지는 문'자 그대로 감옥으로 화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수난의 시기에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 광복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 항일 빨찌산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항일 빨찌산 용사들의 투쟁의 길은 지극히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의 길이였다. 15여 성상에 걸친 오랜 기간 그들은 때로는 끼니가 끊어져 풀뿌리로 목숨을 이어 가며 싸워야 했고 때로는 승냥이도 얼어 죽는 혹한의 날에 눈무지 우에서 그 몇 밤을 지새여야 했다.

영웅적 항일 빨찌산 투사들은 두 겹, 세 겹의 적 포위 속에서도 용감하게 죽음과 시련의 고비를 뚫고 넘었으며 그러다 마침내 숨을 지으면서도 나무 그루와 바위'돌에 《공산주의 만세》라는 글자를 붉은 피로 기록하였다. 그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미래를 사랑하라!》——김 일성 원수의 이 말씀은 바로 조국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조국의 행복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투쟁 정신을 고무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적 호소이다.

혁명 선배들의 고난에 찬 한걸음 한걸음이 미래와 어떻게 련결되고 있었는가! 생명의 마지막 숨'결을 지으면서도 혁명 투사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는 자기의 이 위대한 주제를 훌륭한 형상으로써 우리를 무한히 감동시켜 주고 있다.

× ×

영화의 첫 화면에서부터 지하 공청원 박 길산은 다른 많은 공청 조직의 동무들과 함께 맹렬한 투쟁을 한다. 그는 장'거리에 모여든 혼잡한 군중들 속에 끼여 그들의 머리 우에 수많은 삐라를 마구 뿌리며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달려 온 경찰의 잔등에다도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라는 삐라를 대담하게 붙인다.

길산은 공청원들과 함께 선전 공작도 하며 유격 부대에 식량도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일제 헌병으로 가장하고 일제의 은행에 달려 들어 감쪽같이 거액의 화폐를 로획하여 온다. 그때 당시 공청 조직 앞에는 유격대에 의연금을 보내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청 회의는 그의 모험주의적 행동을 준렬히 비판한다. 《동무는 공청원이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의연금 모집은 다만 돈을 모으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유격대와 인민들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공청원들을 교양하는 데 있소.》

영화는 이 긴장된 장면에서 아직 투쟁 속에서 세련되지 못한 한 사람의 젊은 투사를 이끌고 나가는 집단의 사랑과 혁명적 동지애를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길산은 자기의 형을 살해한 흉악한 주구 리추문의 밀고로서 불행하게도 체포된다. 그러나 아동단원 영남이의 도움을 받아 악전 고투하면서 원쑤의 소굴에서 간신히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원쑤놈들은 길산이가 탈출한 것을 알아 차리고 그의 집으로 달려든다. 원쑤 놈들은 길산이의 어머니를 끌어내고 집에 불을 지른다. 불타는 집과 어머니의 비명 소리, 그리고 원쑤놈들의 간악한 울부짖음과 행패를 바로 뒤'산에서 내려다 보며 길산은 복쑤심으로 심장을 태우며 입을 굳게 다문다. 원쑤의 추격을 받으며 그들——길산이와 공청원 현순이와 아동단원 영남이는 간고한 행군의 길을 떠났다.

하늘에 높이 솟은 로야령, 험준한 산'발을 탄 그들의 행군을 육체의 고달픔과 굶주림과 어둠이 그 몇 번 가로 막았던가!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마다 공청원답게 일어나 앞으로 나갔고 앞으로 나가며 김 일성 원수의 영상을 눈 앞에 그려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걷는 길이 바로 김 일성 원수가 계시는 유격대의 대오에 닿아 있는 길임을 명심하였기 때문에 순간을 지체하지 않았고 오히려 걸음을 옮기여 디딜 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군 하였다.

죽음의 고비를 그 몇 번 박차며 천신 만고 강행군을 거듭한 그들은 마침내 빨찌산 대오를 찾아 영광의 입대를 한다.

《공청이 나를 키워 주었습니다. 당이 나를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준엄하고 영광스러운 공청 생활의 나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를 당원으로 받아 주신다면 당원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 생애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입당의 날, 길산은 이렇게 심장의 맹세를 엄숙히 다진다.

길산의 중대는 사령부에서 사차구 전투 임무를 받는다. 이 전투는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을 침략하며 더 나아가서는 쏘련을 침공하려는 일제의 흉악한 작전에 섬멸적 타격을 줄 대규모적 전투의 전술적 일환이였다.

마침내 유격대 용사들은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적의 무리를 죽음의 함정 속에 성공적으로 처넣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길산은 두 눈의 광명을 적의 흉탄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가 입은 두 눈의 부상은 전우들의 가슴을 한 없이 안타깝게 하였으며 더우기 현순이의 맑은 감정을 아프게 하였다.

길산은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두 눈을 감고서는 원쑤를 똑바로 볼 수 없다. 원쑤를 똑바로 볼 수 없으니 가증한 원쑤와 싸울 수 없지 않는가? 투사로서 투쟁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그 어데 있겠는가? 아니다! 싸워야 한다. 한순간도 싸움의 길에서 비켜 설 수 없다. 그렇다. 싸우기 위하여 두 눈의 광명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것은 길산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투였다. 그것은 정신적 고뇌와의 전투이며 광명을 위한 전투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 일성 장군께서는 길산에게 친서와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보내 드린 인삼과 그리고 약을 보내 주신다. 길산은 경애하는 그이의 친서를 가슴에 안고 그이의 영상을 그리며 참으로 위대한 조국의 목소리를 지척에서 듣는 감정으로 감격의 눈물을 머금는다.

길산의 두 눈은 드디여 암흑을 뚫고 광명을 찾아 냈다.

화면은 계속하여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원쑤에게는 추호의 굴복과 타협을 모르는 아름답고도 의지적인 인간인 박 길산의 청춘 시절의 준엄한 나날을 펼쳐 주면서 전개된다.

그러나 이 준엄한 나날 가운데서도 가장 준엄한 날이 그의 머리 우에 뒤덮이였다.

길산이며 인삼 아바이며 공청원인 김 종호들이 적의 무리에 체포된 것이다.

이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접결처의 정치 위원은 이렇게 엄숙히 말한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굴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참뜻을 가슴 깊이 지니고 있었다.

어두운 방에서 길산은 이렇게 말한다.

《—공산당원에겐 죽음이란 없다! 공산당원은 영원히 살 것이요.… 미래를 사랑하라! 미래에서 당겨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앞당겨 오라!…》.

영화는 미래를 사랑하며 미래를 위하여 자

가의 귀중한 모든 것을 바치는 투사들의 죽음, 아니 투사들의 생명의 위대성을 우리들의 심장 속에 격조 높이 안겨 주면서 끝난다.

× ×

이 영화가 화면에서 보여 주고 있는 위대한 생활, 영화에 줄기차게 관통되고 있는 통일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화면에서 맨 처음 우리들의 내면 세계에 깊이 파고 들면서 그것을 끝 없이 확대시켜 주는 것은 공청 시절의 박 길산과 김 현순의 혁명에 대한,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과 헌신적 복무의 모범이다. 그들은 개인의 명예나 안일한 향락의 추구와는 털끝 만치도 인연이 없는 조국과 민족의 미래 운명을 개척하는 혁명 위업을 위하여 자기들의 청춘과 청춘의 모든 생활과 젊은 나날의 모든 사념까지를 바쳐 싸운다.

자기의 어머니와 집과 생활의 모든 것이 불속에 파묻혀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는 엄연한 현실을 목격하면서도 길산은 개인적 생활의 길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투쟁의 길로 억세인 자기의 발걸음을 옮긴다. 야수들의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는 또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과 위험한 최후의 순간을 목격한다. 그러면서도 길산이와 그의 어머니는 일치하게 원쑤놈들 앞에 조직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서 개인적 구원의 길을 박차 버린다.

그것은 오직 혁명을 승리함이 없이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함이 없이는 개인의 행복도, 개인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그들의 피'줄 속에 맥박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면에 비친 이 위대한 인간들의 생활 가운데서 다음으로 우리들의 심장에 영원한 기억을 남겨 주는 것은 투사들의 곤난 극복의 정신이다.

원쑤놈들의 추격, 추격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뒤에는 극도의 육체적 피로, 그 우에 닥가 오는 기아, 험준한 산'길, 이들은 이러한 간고한 행군의 나날을 굴함 없이 싸워 이기며 생의 길로, 투쟁의 길로 힘 있게 걸어 나가고 있다.

전투에서 두 눈에 부상을 입고 실명하였을 때에도 그는 조금도 락심하지 않으며 조금도 침울해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투쟁의 길에서 비켜 선 자신과 원쑤를 정면으로 쏘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두 눈을 안타까이 저주하며 오직 회복을 위한 완강한 노력과 회복된 뒤에 있을 보다 큰 전투에의 참가를 열망한다. 마지막 죽음에 직면하여서도 길산은 소리 높이 《우리는 너무 일찌 죽소. 그러나 이 길은 영원한 삶의 길이요. 목숨은 버리어도 혁명은 버릴 수 없소.》라고 웨친다.

그들의 걸음걸음은 참으로 그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였던가?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엄혹한 시련도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 길에서 추호의 동요도 불안도 몰랐으며 만난을 극복하면서 백절불굴의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투사들의 신념의 원천은 오직 낡은 것인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며 새 것,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맑스—레닌주의적 신념으로 견고히 무장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락관주의의 정신적 원천으로 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영화의 서사시적 흐름 가운데서 사형 당하기 전날'밤 감옥 속에서의 세 용사의 당 회의 장면을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날이 밝으면 그들은 사형장으로 끌려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날 밤 공청원 종호는 오래 동안 가슴 속에 귀중히 간직하고 다니던 피와 땀에 젖은 입당 청원서를 두 당원 앞에 내놓는다. 두 당원, 길산이와 인삼 아바이는 당 회의를 열고 투쟁 속에서 그의 의지의 굳음과 그의 심장의 뜨거움을 검열한 공청원 한 사람을 당에 받아 들인다.

그들은 수갑에 얽매운 손을 들어 그의 입당을 찬성한다.

실로 이 장면은 위대한 인간들의 리념과 생에 대한 고매한 철학을 생동하고도 진실하게 보여 주면서 우리들의 신심과 투지를 다시 한번 더 가다듬게 하여 준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다 보면서, 무엇을 믿으면서, 무슨 힘으로 그렇듯 억세게, 그렇듯 태연하게 걸어 나가고 있는가! 이 영화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투사들은 반드시 오고야말 휘황 찬란한 미래를 바라다 보았다. 투사들은 그 미래의 확고한 도래와 승리를 담보하는 혁명의 사상,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굳게 믿었다. 투사들은 그 미래와 그 사상이 안겨 준 혁명적 락관주의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 영화의 마지막 무렵에 고조되는 음악은 장렬하게 우리들의 심장을 두드리면서 미래를 바라다 보며 미래를 사랑하며 미래를 앞당기면서 전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앞길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가로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장엄하게 울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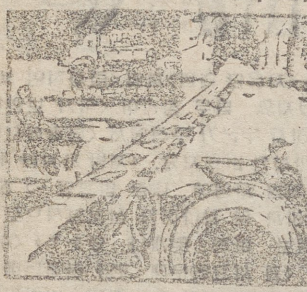
× ×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사업과 생활과 투쟁의 매 걸음마다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의무로 되고 있다. 혁명 전통의 계승과 그의 생활에의 구현, 그것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 흘려 싸웠으며 악전 고투하여 온 혁명 위업을 계승하여 빛나게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혁명 투사들의 그 높은 사상 체계와 작풍과 사업 전통을 이어 받아 그들처럼 사고하며 행동하며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를 사랑하라!》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 또한 미래를 사랑하여야 한다. 우리의 귀중한 후손들이 통일된 조국 땅 우에서 생을 즐기게 해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의 락원인 공산주의 사회를 넘겨 주기 위하여 우리의 존경하는 혁명 선배들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미래를 사랑하여야 하며 그렇게 용감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

민청 단체들에서

반 기계화로부터 더 높은 단계에로!



개성 석회 건재 생산 협동 조합에서는 개성 지구내의 도시와 농촌에서 필요한 기와를 자체로 생산해 낼 것을 결의하였다.

이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려면 종전의 락후한 수공업적 설비만을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였다. 그래 조합에서는 민청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산에 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벌러졌다.

이들은 락후한 설비들을 현대적인 동력 설비로 재정비하여 새로운 방법들로서 더 많은 생산을 내도록 하라는 김 일성 수상님의 교시 대로 가능한 모든 설비들을 재정비하여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려고 힘쓰고 있다.

공무 동력 부문내 민청원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짜내여 1분 동안에 39 매의 질 좋은 기와를 뽑아낼 수 있는 자동 기와 성형기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계로는 하루에 1만 8천 매의 기와를 만들수 있는데 이것은 손로동에 비하여 30 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기계이다. 그들은 이 기계를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3,600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한편 기와 작장내 청년들은 동기에도 더 많은 기와를 건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이들은 작업장내 페치까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화구를 개조하는 등으로 방안의 보온 장치를 빈틈 없이 해놓은 다음 목선반의 적재 간격을 좁혀서 종전 보다 훨씬 많은 량의 기와를 건조해낼 수 있게끔 설비를 개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유휴 자재로 로라를 만들어서 새로 증설하여 하루에 20 톤의 채사를 더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내 민청원들은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열성자 대회 결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조합의 생산 설비들을 반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조합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더 질 좋은 기와로 지방적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힘쓰고 있다. (본사 기자)

원료 원천은 확보되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한때 배정되는 원료에만 매달렸던 탓으로 하여 때로는 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온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배정하는 원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방 산업 공장들과 생산 협동 조합들은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들을 탐구하여 원료 공급 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은 우리들은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궐기하였다.

우리들은 우선 각지에 널려져 있는 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민청원들의 발기에 의하여 사방에 널려져 있는 피마주'대, 노박 덩굴, 면경피 등을 수집한다면 훌륭한 원료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원료 수집 사업이 벌러진지 며칠 안되어 공장 뒤'마당에는 야생 섬유 원료들이 더미로 무져지게 되였다.

한편 우리 돌격대원들은 집 주변과 들에 널려 있는 야생 섬유 원료들을 출퇴근 시간을 리용하여 수집하였다가 아침마다 가지고 나올 것을 전체 종업원들에게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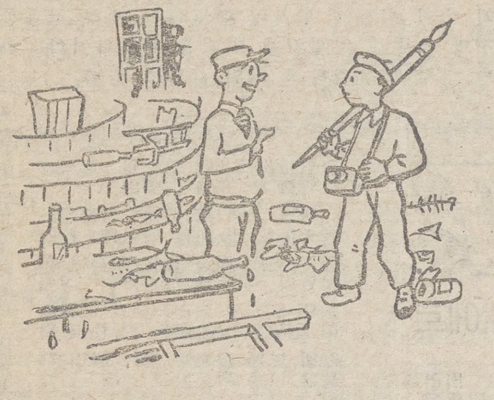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원료 원천을 마련해 놓을 수 있게 된 우리는 락후한 수공업적인 설비들을 현대적인 동력 설비로 재정비 하라는 수상 동지의 교시 대로 현재의 수직기를 전부 력직기로 바꿔 댐으로써 더 질 좋고 다양한 직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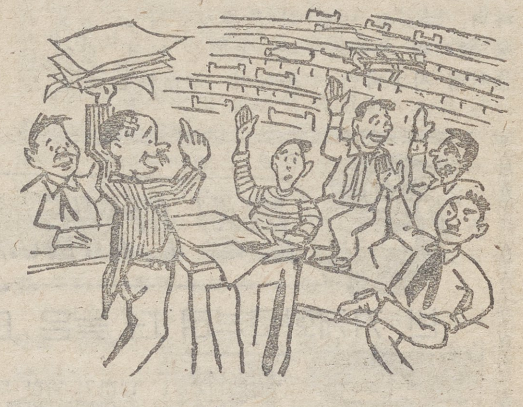
황해북도 봉산군 봉산 직물 공장
직포공 김 춘택



만수의 세계려행 (남조선에서)







나는 괴뢰 국회 의사당으로 들어 갔다. 테블 우엔 술'병과 명태 대가리, 담배 꽁초들이 지저분히 널려 있다.

나는 눈이 둥그래졌다. 잘못 들어 왔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되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웬 사나이가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이미 낯'익힌 신문 기자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엔 아직 대판 싸움이 벌러지지 않았지만 <신국가 보안법>을 통과시키던 때는 대단했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식당에 간 사이에 <자유당 의원>들끼리 <신국가 보안법>을 슬쩍 <통과>시켰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챤스에 한몫 보자고 <롱성> 투쟁에 나섰지요. 그런데 며칠후에 <자유당 의원>들이 수백명의 경찰을 데리고 와서 대판 싸움이 벌러지질 않았겠소. 맥주'병이 날고 명태쾌가 날고, 재떨이가 깨지고 의자가 뒤집히고 그 가운데서 들려 오는 비명과 아우성 소리. 《의사당》은 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오…

의사당 안에서는 <자유당 의원>끼리 <력사적인 30차 본 회의>를 개최했지요. 법무 장관이 <국가 보안법>을 해설하기 시작하자 누군가 구석에서 <통과합시다> 하고 고함쳐서 통과시켜 버렸지요. <지방 자치법 개정안, 또 참의원 선거법 시행에 대한 법률안…> 하고 다시 해설을 계속하자 웬 사나이가 신경질적으로 묻지 않았겠소! <여보 아직 몇개나 있소?> <아직 스무개나 있습죠> <거 시끄러운데 그냥 한꺼번에 통과시켜 버립시다> 이렇게 하여 23 개의 법안이 눈깜짝할 사이에 모두 통과되였답니다.>

인민들이야 죽건 살건 이들은 추악한 개싸움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남조선 괴뢰 국회를 분석해 보면 그의 반인민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국회 의원 233 명중 127 명은 《전국회 의원》과 권직 관료배들이고 53명은 매판 자본가와 상인이고 지주가 32 명 기타 어중이떠중이들이 21 명이다. 로동자, 농민의 대표란 단 한명도 없다.

나는 《민주당 최고 의원》인 조 병옥을 만났다. 속은 리 승만이와 똑같은 자이지만 겉으로는 백성을 생각하는 척 했다.









《<자유당>의 통치로 하여 한국은 멸망에 직면하고 있는데 리 승만은 속수 무책이란 말이요. 그래 우리 <민주당>은 래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쥐고 한국을 도탄에서 구원할 작정이요.》 조 병옥은 점잖을 빼며 이렇게 떠벌리였다. 《그런데 파가 많아 걱정이요 <자유당>에선 리 기붕의 <주류파>, 그를 반대하는 <비주류파>, 리 재학의 <관료파>, 장 경근의 <법조파>들이 개싸움을 하오. 그러나 그건 여당의 일이니 참여할바 아니고 우리 <민주당> 내에도 괴상한 파들이 속출하여 말썽이요.》 하고 한숨 쉬였다.

나는 경상남도 지사를 만났는 데 그는 괴뢰 정부 관리하에 있는 량곡 1만 5천 가마니를 횡령 착복한 자이다.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러슈… 대통령 각하께서는 전체 적산을 팔아 기침 한 번 안하고 잡수시는 데 그까짓 1억 5천만 환쯤 먹었다고 야단이니… 대통령 각하께서는 원조 물자 먹은게 3천7백8억 5천 9백환, 비료대 먹은게 10억 7천 여만 환 …또 헤헤… 그걸 다 꼽아 뭘하겠소.》하고 웃어 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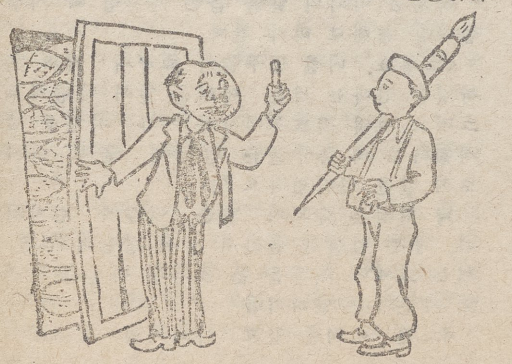
나는 다음으로 군량미와 휘발유 등을 횡령하여 《호텔》까지 경영하고 있는 괴뢰 륙군 《제1 관구 사령관》을 찾아 갔다.

《지난 봄에 28사 사단장이 제1 대대장에게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이래 륙군 참모 총장을 비롯하여 수뇌부의 대폭 이동이 있었다오. 그러나 그것으론 해결이 안되오. 군대 내부의 파벌 싸움도 문제로 되지만 그보다 병사들의 염군 사상이 높아 가는게 큰 야단이요. 이러단 정말 망하겠소!》하고 불룩한 배를 그러 안고 한숨 쉬였다.

한 로동자는 나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시대의 추물의 하나인 리 승만은 문'자 그대로 앞으로 닥쳐올 세찬 폭풍 앞에서 건들거리는 고무 풍선과도 같이 허공에 뜬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고독한 늙은 두상이며> <인민들에게서 고립당한 한개 허수아비>며 동방의 송장입죠. 우리 남조선 인민들은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에 고무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전진 앞에 놈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며 멸망하고 말것 입니다.》

글 박 승수, 그림 남 현주







김 기영

13. 새로운 결의

7형제 바위를 세번째로 마지막 발파 (3월 17일)를 하고난 뒤의 어느날이였다.

그날 오전에 제 3 대대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인민군 협주단이 위안 공연을 하게 되였다. 그들은 대대부 광장에다 천막을 쳐서 로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예술을 청년 건설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협주단원들과 같이 전체 대원들은 군악과 아꼬데온의 반주에 맞추어서 군중 무도를 시작하였다. 천 여 명의 군중이 일대 군무를 추는 광경은 정말로 불상하였다.

전 숙희는 박 지성과 마주 춤을 추다가 무용이 끝난 후에 잠시 휴식 시간을 틈타서 뒤'산으로 올라 갔다.

두 사람은 잔솔포기 사이에 있는 바위'돌 우에 언제와 같이 나란이 앉았다.

《또 불발탄을 캐러 가신다지요?》

《래일 떠나려 합니다.》

박 지성은 그 후에도 화약이 소용되여서 불발 폭탄을 구하러 다녔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은가요? 혹시 잘 못 다루다가…》

숙희는 말끝을 흐리머리하며 박 지성을 할끗 쳐다본다.

《그런 념려는 없소.》

《불발탄을 다루는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그러나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해야 하며 또 할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는 공병이였으니까.》

《그러나 위험한 일이 아니예요.》

숙희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박 지성은 한참 동안을 뻔히 마주 보다가

《어째 동무는 불발탄에 대하여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요?》하고 의심적게 물어 보았다.

《그런게 아니라 동무네 돌격대원 (리 수복 영웅 돌격대)들이 제일 큰 난공사인 7 형제 바위를 발파하여 성공하였는 데 그것은 불발탄을 주어다 쓴 때문이 아니였나요.》하고 숙희는 말끝을 흐리며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였다.

《그렇기로 말하면 동무네도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소?》

《우리가요…》

숙희는 이외의 말을 듣는 때처럼 박 지성을 놀라운 눈매로 바라 본다.

《그럼요. 녀성 동무들이 교각의 기초 굴착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대대 지도부에서는 야간 작업을 금지 시켰다는 데 동무들은 밤'중에 몰래 나가서 도적 일을 한다면서요?》

박 지성은 숙희의 말을 이렇게 반박하였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잠시 덩둘해 있던 숙희는 그제야 의혹을 푼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하기를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철교의 제 1호 교각을 우리 녀성 돌격대가 감당하였으니 만큼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자체의 힘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해놓고서 남자 동무들의 힘을 빈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조 옥희 영웅 돌격대의 명칭을 가진 녀성 돌격대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동무도 생각해 보십시요.》

하고 상대방을 가만히 쳐다 본다. 그것은 마치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려는지, 그 속을 알려는 것처럼—

《동무의 강한 책임성에는 물론 찬성이요. 나도 자기의 책임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소. 우리 리 수복 영웅 돌격대원들은 나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든 일들을 하니까요. 나는 다만 공병으로서의 폭발물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발파 작업에서 발휘하는 것 뿐인데 발파공의 자격을 가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겠소.—나는 전쟁 시기에 공병으로 활동하였던만큼 지금도 그런 전투적 임무를 맡고 싶소.》

박 지성의 말이 끝나자

《물론 그것은 동무의 생각이 옳아요.》

하고 전 숙희는 영채가 도는 눈'동자를 굴리였다. 사실 그는 박 지성의 애국심으로 안받침된 높은 책임성과 대담성, 용감성을 마음속으로 미쁘게 생각하였다.

《숙희 동무! 난 동무에게 한 가지 물어 볼 말이 있소.》

《네. 무엇인가요?》

《동무는 자기의 장래에 대하여 어떠한 설계도를 꾸미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박 지성은 약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염눈질로 본다.

《설계도요?…난 아직 그런게 없는데요.》

숙희는 남몰래 처녀의 부끄럼을 타고 있었다.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무슨 희망이나 공상을 하는 것이 있겠지요?》

《글쎄요.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누구에게나 장래의 양양한 전망이 있지 않겠어요,—그런 의미에서라면 나 역시 아름다운 생활을 꿈구고 있어요.》

하고 숙희는 해죽이 웃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해서—그 아름다운 생활이란?…》

《저——우리들이 요전까지 들어 있던 주인집 김 윤동 로인은 이 근처에서 유명한 한학자래요. 그 로인이 그러는 데 자기는 봉건 리조 시대와 일제 통치 시대와 지금 우리 공화국의 세 시대를 살아 왔지만 오늘 우리 나라와 같은 현명한 정치는 처음 본다구요! 그래 자기가 겪어온 지난 날의 암담하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 오늘 우리 공화국 청년들이 무척 부럽다고 그러겠지요.》

박 지성은 담배를 한 대 피여 문다.

《난 그 로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태여났는지 그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뻐근하겠지요.》

《숙희 동무! 동무는 인간의 행복을 어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요?》

박 지성이 이렇게 묻는 말에 숙희는 의미있는 눈총으로 마주 쏘아 보다가 한참만에——

《그것은 일찌기 맑스가 말하지 않았어요.——그의 딸들에 물었을 때 행복은 투쟁 속에서 찾아야 한다구요!》

《그렇지요! 천리마 시대에 사는 공화국 청년들의 행복도 투쟁에서 찾아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동무는 나를 어떻게 보시요.》

《네?》

《동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동무가 나의 길'동무로 되여 주기를 바랍니다!》

《……》

박 지성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숙희는 두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인다.

《어떻소?…자기의 심중을 말해 주시요.》

이렇게 말하는 박 지성은 가슴의 고동을 느끼였다.

《난…그런 문제를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잠시후에 숙희는 고개를 반짝 처들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구한다.

《내 말은 동무가 당장 애인으로 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테면, 대상으로 문제를 삼아서 서로 연구해 보자는 그 말입니다. 2계단 공사가 끝날 때까지…》

《……》

《동무는 푸른 맹증을 붉은 당증으로 바꾸고 싶다 했지요!》

《그랬어요.》

숙희는 상기가 된 얼굴로 박 지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구한다.

《우리 그럼 서로 약속합시다. 동무는 당원이 되고 나는 로력 영웅이 되도록 열성적으로 일을 잘 하여 둘이 다 소원을 성취하도록…》

《…그러 못되면 어떻게 하구요?》

《하니까 피차간 경쟁을 하잔 말요.… 2계단 공사가 끝날 때까지.》

박 지성은 숙희의 정찬 웃음에 따라 웃었다.

《동무는 영웅이 될는지 모르지만 난 그 때까지 당원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째서? 그야 우리가 일하는 것은 꼭 영웅이나 당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로력적 성과를 위하여, 나라의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자는 그것입니다. 하니까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게 달렸다 하겠지요.》

《네! 동무의 말씀은 리해할 수 있어요.》

숙희는 박 지성의 의견에 은연중 찬동하였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그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3월의 기후는 아직도 쌀쌀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여 생기 있고 탄력이 강한 긴장성으로 하여 유쾌한 기분을 자아내게 하였다.

박 지성은 남모르는 행복을 느끼였다. 그것은 숙희한테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였기 때문이다. 하기는 숙희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싫지 않은 눈치가 아닌가!

그들이 막 일어 서려고 하는 데, 맞은 편에서 홀연히 김 충걸이가 나타났다. 큰 키를 휘청거리는 그는 버릇 대로 코끝을 쭝긋쭝긋 하더니만

《흥! 행복한 장면인데…》

하고 이편으로 마주 걸어 오며 싱글싱글 웃는 것이였다.

《동무는 롱담을 좀 삼가하세요!》

숙희는 김 충걸을 노려보며 야무지게 쏘아부쳤다.

《롱담은 누가…아니 그럼 이게 불행한 장면이란 말요?》

김 충걸은 불뚝해서 마주 대거리를 하여 들어 선다.

《동무는 녀자를 멸시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건 낡은 사상의 잔재예요. 그리고 동무는 말이 헤퍼요. 동지적 비판을 접수하고 빨리 고치세요!》

숙희는 이와 같이 대'구하고는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 산 밑으로 내려 갔다.

《예――접수하겠수다. 또 봉변을 당했군 내가 와서 방해나 되지 않았는가요?》

김 충걸은 계면쩍은 듯이 박 지성의 눈치를 슬쩍 보며 어색한 태도를 짓는다.

《방해는 무슨――우리도 내려 갑시다.》

바로 그때 점심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땡땡 울려 왔다.

《흥! 롱담도 맘대로 못하겠으니!》

《동무는 인제 롱담은 그만두고 재담을 하구려, 그럼 시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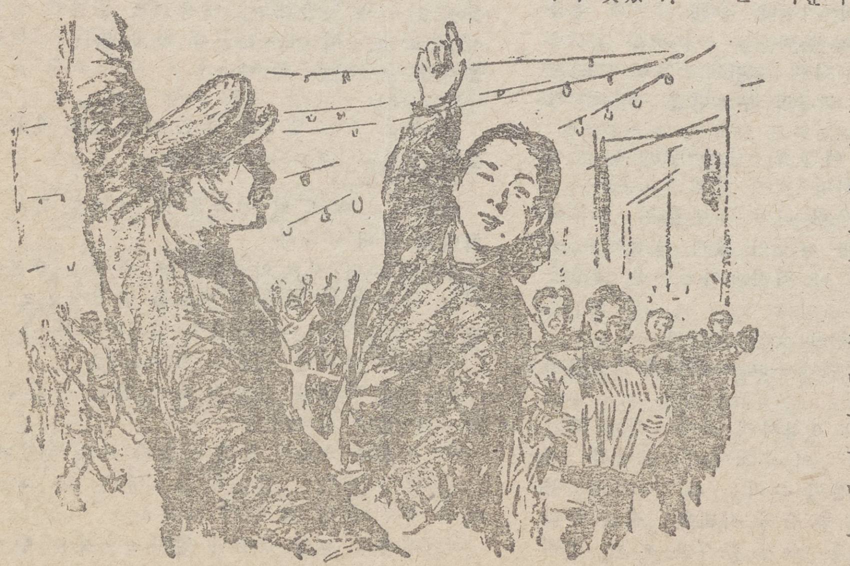
박 지성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담배를 부쳐 물며 허허 웃는다. 김 충걸에게도 한 대를 권하면서――

《재담을 할 줄 알아야죠.》

김 충걸은 시무룩한 대답을 한다.

《아니 그건 롱담의 질을 제고하면 재담이 될 수 있소. 동무는 그 방면에 소질이 있으니까.》

박 지성은 가는 눈을 치뜨며 쾌활하게 또 다시 웃었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은 것 같았다.



김 충걸은 현장 작업에서 남만큼 일을 못하지 않는 축이였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롱담하기를 좋아하는 실없은 성격을 가진 것이 험'집이였다. 그래 그는 동무들 한테서 《아욱 장아찌》라는 별명을 듣는다. 그것은 싱겁다는 뜻이다.

14. 인민들과의 련계

철도 연선의 부근 농민들은 관개 공사를 도처에서 하고 있다. 그들은 례성강 물'줄기를 따라서 군데군데에 양수장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철도 부설 공사와 관개 공사가 지척간이 되여서 그런 곳에서는 서로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다른 한편으로 랭상모의 락종이 한창이였다. 금년에는 깊이 갈고 배게 심어야 해서 랭상 모판을 작년의 2배 이상으로 확장하게 되였다. 그것은 로력이 더 많이 들게 하였다. 그들은 밭 관개를 위한 수리 공사와 봄갈이 퇴비 운반 및 목화 영양단지 등의 일'거리가 뒤를 이어서 바쁘게 날뛰였다.

제 3 대대 소속의 청년 건설자들은 달'밤에 몰래 랭상 모판 장소를 찾아 가서 모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부락 농민들이 어제 못다한 남은 일을 마저 하려고 나와 보니 이런 희한한 일이 있는가! 밤 동안에 모판을 말끔히 다 해치웠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였을가? 한 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일을 하였으니!》

《뻔하지 않소. 철도 건설자들이 했겠지요.》

《음 그렇지, 그 사람들 밖에야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했겠소.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농민들은 철도 건설자들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바빠서 그들의 작업을 못도와 주는 것이 여간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어른들의 이와 같은 심정을 인민 학교 학생들이 눈치채였다. 그들은 하학을 하는 즉시 빨리 집으로 돌아 와서 책보를 두고서는 제가끔 철도 건설장으로 달려 나갔다. 지게에다 삼태기를 얹어서 지고 간 큰 아이들은 흙을 파는 데로 가서 삼태기를 들이 밀었다. 소녀들은 함지박과 대야를 이고 나와서 흙을 담아다 날랐다. 삽과 괭이로 땅을 파는 축에 가래'줄을 당겨 주는 축에 그들은 저마다 깜냥대로 일들을 하였다. 비록 어린 학생들이였지만 수백명이 성토 작업에 달라 붙으니 그 구역은 버쩍버쩍 일'자리를 내였다. 그것은 침교천에서 소달천 구역까지 철'둑을 쌓고 로반 공사를 빠른 기간에 완수할 수 있게 하였다.

소달천에는 아치식의 한 구멍 다리를 놓는다. 다리의 높이는 십여 길이나 된다. 다리를 넘어 서면 산'굽이를 돌아 가게 되였다. 거기에는 타도에서 응원대로 온 고중 학생들과 농촌 청년들이 달라 붙었다. 그들 역시 성토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큰 골에서 성토 작업을 협조 나온 인민 학교 학생 중에는 열 세 살에 난 박 명순이란 소녀가 있었다. 그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부모를 적의 폭격에서 여의고 먼촌 일가'집에 얹혀 있는 고아였다.

어느날 박 지성은 이 소녀가 일하는 현장을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며 잠시 다리를 쉬고 있을 때 리 종호 제 1 중대장 한테서 그의 가엾은 래력을 들었다.

박 지성은 자기의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남조선에서 살 수 없게 되여 함남 단천 지방으로 해방전에 이사를 왔었는데 그의 부모 역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원쑤놈들의 폭격으로 피살되였다. 그에게도 어린 누이 동생이 있었는 데 량친과 함께 원통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는 박 명순 소녀의 경력을 들어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은 가엾은 생각과 동정심이 긇어 올랐다.

그후 어느날――박 지성은 신계 내무서로 볼일을 보러 갔던 길에 상점에서 소녀의 치마 저고리 한 감을 샀다. 그는 돌아 오는 길에 박 명순 소녀를 찾아 가서 그 옷감을 선물로 주었다.

그때 박 명순은 그 것을 아니 받겠다고 고사하였다. 어른들이 받으라고 권고하니 그는 마지못해 받으면서 감격한 눈물을 흘리였다.

박 지성은 소녀가 우는 것을 보고 마주 눈물을 흘리였다. 그리고 그에게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주었다.

침교리에 사는 김 윤동 로인은 원래 진보적 사상을 가졌었다. 그런데 금번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마을에 들어 와서 철'길을 놓는 바람에 대대의 간부들과 알게 되였다. 그들이 합숙소를 짓기 전에는 방 한 간을 빌려 준 관계로 조 옥희 영웅 돌격대와 녀성 대원들과도 알게 되였다. 그들과의 교제에서 김 로인은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달았다. 그후 합숙소를 짓고 녀성 대원들이 숙소를 옮기게 되였을 때 김 로인 집에서는 섭섭하다고 저녁 한 때를 그들에게 대접할 준비를 하였다. 한집안 식구처럼 지내다가 그들이 옮겨 가게 되니 미상불 서운한 정이 피차간 없지 않았다.

청년 오락실

수 수 께 끼

1. 안팎 성으로 두른 딴 세상에 백동무와 황동무가 같이 살고 있는게 무엇인가?

2. 꽃이 피여 열매되고 열매가 다시 꽃으로 되는게 무엇인가?

(현) (상) (문) (제)

1. 다음 문장의 □□에 단어를 써 넣으라.

맹원증은 민청원의 □□로운 □□를 보증하는 징표이다. 민청원은 누구를 물론하고 그가 민청에 □□하고 □□□을 수여 받을 때 민청의 □□□□을 승인하고 민청의 일정한 □□내에서 충실히 □□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에 □□□ 충직하며 당의 빛나는 □□ □□의 계승이며 그가 제시하는 영광스러운 □□ 과업 수행을 위하여 □□을 가리지 않고 싸울 민청원의 붉은 신념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민주청년 3월 26일부를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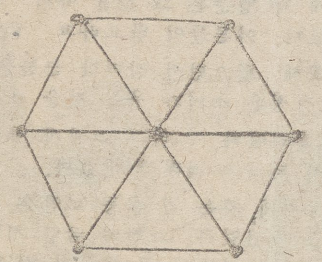
2. 이것은 어느 작품의 한 구절인가?

까닭 없이 반가워 헐떡거리는 얼굴을 보는 순간 려순은 마치 먼 ㅡ타국에서 고향으로 들어온 것 같은 반가움을 느꼈다. 려순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동무로구나 하였다. 려순은 언젠가 준식이가 사람은 자기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던 말을 회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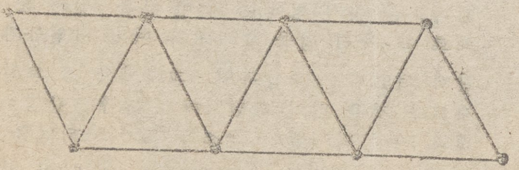
——◇——

☆11호 오락 문제의 해답☆

두 동무가 만든 칸들은 그림 1, 2와 같다.



(그림 1)



(그림 2)

☆11호 현상 문제 해답과 당선자들☆

1. 리 기영작 장편 소설 《땅》
2. 김 소월 작 《초혼》

함북도— 윤 밀담
함북도— 박 원갈
함남도— 전 병윤
함남도— 박 형연
평북도— 한 기호
평북도— 홍 남진
평남도— 김 명선
평남도— 임 문옥
자강도— 백 남성
자강도— 강 신남
량강도— 리 채운
량강도— 한 창윤
강원도— 전 동섭
황북도— 신 상철
황북도— 고 치안
황남도— 박 태원
황남도— 옥 성택
평양시— 김 송자
평양시— 라 옥진
개성시— 김 춘
조선 인민군— 홍 규항

《청년생활》은 청년들의 친근한 벗





친애하는《청년생활》독자 동무들!

1960년도 출판물 구독 예약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해당 소재지의 체신부와 우편국을 통하여 광범히 예약 신청하십시요.

